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이경식 부총장(국제협력)의 신년인사



을사년 새해,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4년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에 많은 획기적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CST는 작년 늦음 봄에 클레어몬트 캠퍼스에서의 67년 신학교육 여정을 마치고 웨스트우드로 이전을 했습니다. 큰 대지의 캠퍼스와 많은 추억을 뒤에 두고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새로 이전한 웨스트우드 캠퍼스는 UCLA 근처에 있으며, 시설이 전 캠퍼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납니다.

2024년 CST의 여러 학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가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은 해입니다. 온라인이라 하여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의 과목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 과목들과 함께 집중 수업을 병행하여, 학생과 교수가 직접 만나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Los Angeles의 어마어마한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며 캠퍼스에서 멀리서 사는 학생들도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ST의 입학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과 2025년 봄 학기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110명이 넘습니다. CST같이 비교적 작은 신학교의한 해 입학생이 110명이 넘은 것은 대단히 고무적 현상입니다.

CST는 더욱더 국제적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벌써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2025년 1월 한국에서 열리는 D.Min. session에 20명의 목회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CST의 D.Min. 프로그램은 (디렉터: 김남중 부학장) 많은 동문을 배출했으며, 이분들의 한국에서의 공헌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2024년 11월에는 CST 동문 우광성 목사님과 김성복 목사님이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4년 7월에 한국에서 전문상담 박사 과정(DPC)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이미 상담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박사 과정이며 (디렉터: 이경식 부총장), 서울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이사장: 정태기 박사)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학위 과정입니다. 2025년 2월, 서울에서 집중 수업이 열립니다.

지난 10월, 김남중 부학장님과 함께 저는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CST의 동문회 모임(신임회장: 최신성 목사)에 참석하였고, 입학설명회를 8번 개최하여 47명의 예비 학생을만났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은 CST의 신학교육에 대해 관심있는 학생들이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CST는 석사과정의 모든 한국 유학생과 한인학생에게 100% 등록금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CST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이렇게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동문과 신학교육을 중요시하는 후원자들의 관심과 기도와 기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뉴스레터를 읽고계시는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엔는 CST가 한인 교회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위하여, 4월 5-6일 특별 강좌를 개최합니다. "마음과 이성, 신앙과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의주제를 가지고 CST의 객원 교수인 강남순 교수가 평신도와 목회자를 위한 강연을 할 것입니다. 새로 이전한 웨스트우드 캠퍼스에서 한인들을 위한 첫번째 행사입니다. 저는 2025년 1월 28부터 2월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 중에도 여러 동문교회에서 설교하고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CST를 위하여 Grant Hagiya 총장님의 기도문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시신 사랑의 하나님,
이 커뮤니티가 앞으로 나아갈 때 힘과 회복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연민, 정의, 소속감으로 계속 섬기도록 영감을 주십시오.
CST가 세상의 빛이 되어,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줄 리더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경식 부총장(국제협력) 드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2025년 봄학기 개강 일정



2024년 가을학기 인텐시브 수업 후 전체사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봄학기가 2025년 1월 21일(화)부터 인텐시브 위크로 개강한다. 인텐시브 위크 수업은 Westwood Campus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인텐시브 수업은 본래 학기 중간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봄학기 초에 진행되어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다른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 한 학기 작업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 초에 Westwood로 이전한 후, CST는 온라인 수업, 실시간 줌 수업, 인텐시브 수업의 다양한 format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텐시브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학교 등교 시간을 절약하며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기에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과 교수들의 직접적 교제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인텐시브 수업이 함께 병행되면서, 이약점이 보충되어진다. CST 학생들과 교수들은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봄 학기는 5월 16일(금)까지 진행되며, 5월 20일(화)에 열리는 졸업식으로 마무리된다. 졸업식 전날인 5월 19일(월) 저녁에는 한인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의 첫 학기를 시작하는 CST 학생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 학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더욱 더 성장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소망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대전 목원대서 2025년 겨울(1월) 대면 강좌 개최



2024년 1월 D.Min. Session 학생들과 교수들

CST의 실천신학 목회학 한국어 박사(D.Min.) 과정이 2025년 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겨울 수업을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는 20명이 넘는 박사과정 재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학습하고 연구 프로젝트 작성을 준비하게 된다.

강의는 Practical Research Project Methodology를 주제로 김남중 교수가 맡아 질적 연구의 핵심 이론과 적용들을 소개하며, 김용환 교수는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and Korean-American Contexts라는 주제로 한국 및 한국계 미국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과 화해에 대해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업 기간 중, 1월 8일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김두범 총무)에서 방문하여 격려인사와 식사 후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1월 9일에는 졸업 동문들(박윤준, 가희제, 이종철박사)이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점심 식사와 강의로 격려와 지지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1월 10일에는 한국 총동문회 임원들이 격려차 방문하여 총동문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최신성 동문회 회장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전 천성교회(담임 목사한동수, CST 동문)가 1월 15일에 학생들과 교수들을 초대하여 점심을 제공할 예정이다. CST의 실천신학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지난 16년간 162명 이상의 학생이 입학하여 2024년 5월까지 90명 이상이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목회 리더십을 양성해왔다.

특히, CST는 2025년부터 100%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미국 서부 지역 학교 및 대학협회(WASC)와 북미신학교협회(ATS)의 승인을 받아 박사과정 운영 방식에 혁신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학위 과정 수업의 50% 이상을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나머지 수업은 한국에서 대면 수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미국 입국에 따른 여행 및 체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미래의 목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의 치유와 화해, 공동체 변혁을 핵심 가치로 삼는 이 과정은 한국 교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목회 리더십을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ST는 앞으로도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4년 1월 수업 2024년 1월 수업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재학생 종강 파티



12월 15일 주일 오후 5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재학생들은 함께 모여 2024년을 마무리하는 종강 파티 시간을 가졌다. LA 인근에 사는 한인 학생들은 기말고사와 교회사역을 마친 후, 가을학기 종강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참석했다. 가족을 포함해 17명의 인원이 참석해 풍성한 모임이 되었다.

종강 파티는 패서디나에 있는 호돌이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식당에 모인 한인 학생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다. 그동안 있었던 학업과 사역 이야기로 식당 안은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동양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지훈 목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식사 후에는 이경식 부총장의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 함께 준비한 디저트를 나누며 더욱 깊은 교제를 이어갔다. 한인 학생들은 가을학기 수업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더나아가 미국 생활, 그리고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여정에 대해 나누었다. 삶의 여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서로에게 격려를 전했다. 행복한 나눔 속에서 시간을 잊을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종강 파티는 저녁 10시쯤 되어서 마무리되었다. 오랜만에 이루어진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종강 파티를 통해 한인 학생들은 가을 학기와 2024년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025년에도 한인 학생회는 한인 학생들이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한인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5 한인연합감리교회 강좌

마음과 이성, 신앙과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

"Growing in Hearts and Minds, Faith and Knowledge"





☞ 강사: 강남순 교수

- 소속: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교수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객원교수
- 학력: Drew University, Ph.D.
- 수상: 2017년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저자
- 경력: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정교수 영국 Cambridge University, 신학부 연구교수 세계신학교육기관 협의회 (WOCATI) 회장 한국일보, 시사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저서: 철학자 예수 (2024), 데리다와의 데이트 (2022), 코즈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2022), 질문 빈곤 사회 (2021)



행사일정

시간/일정	4월 5일 (토) 공개 강연	시간/일정	4월 6일 (일) 목회자 강연
오전 10:00 - 12:00	공개 강연 1: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후 16:00 - 18:00	예수는 어떠한 리더인가? 예수 리더십의 7가지 원리와 철학
오후 12:00 - 13:00	점심식사	오후 18:00 - 19:00	저녁식사
오후 13:00 - 15:00	공개 강연 2: 21세기,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주 최 와 장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원: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로스펠리즈연합감리교회 (이석부 목사), 서부지역연회, 온타리오연합감리교회 (전재홍 목사),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크리스챤위글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회장)



문

의: 이경식 부총장 (626.616.2478, slee@cst.edu)

CLAREMONT



록: 우측 하단 QR 참조



등록QR코드

"마음과 이성, 신앙과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 CST, 2025년 한인연합감리교회 강좌 개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2025년 4월 5일(토)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마음과이성, 신앙과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의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평신도와 목회자가함께 배우고 교제하며, 균형 잡힌 신학적 사고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6일 (주일)에는 사역자(목사, 사모, 전도사 등)를 위한 강연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강좌는 강남순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는데, 강남순 교수는 현재 Brite Divinity School의 교수이며,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많은 서적을 출판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신학자이다. 강남순 교수는 기독교대한감리교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지낸 바 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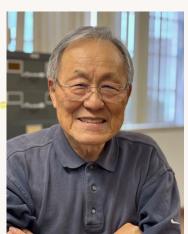
CST가 주체하는 이번 행사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배우고 교제하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자원을 활용하여 한인 교회와 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경식 부총장은 이번 강좌를 위해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합감리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한인 연합감리 교인을 위하여 이러한 공개강좌를 매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행사 일정에 이번 강좌를 포함해 주시고, 평신도들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 대상 강좌에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하여 신학적 성장과 함께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사역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개강좌를 통하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나누는 배움과 교제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통해 함께 신학적 깊이를 더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밝혀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문의: 이경식 부총장

이메일: slee@cst.edu 전화: 626-616-2478

2000년에 은퇴할 때까지23년 동안 클레어몬트에서 봉직하던 때를 생각하며 몇 가지 남겨 놓고 싶은 이야기들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서 23년 동안 봉직하다가 은퇴한 지도 벌써, 일하였던 기간보다 더 지난 지금, 그 때 있었던 몇 가지 남겨 놓고 ** 싶은 이야기가 있어 여기에 적어 보고자 한다.

나는 지금부터 근 50여 년 전인 1977년 7월 1일에 클레어몬트에 부임하였다. 그 당시 나의 타이틀은 Director of the Center for Asian-American Ministries and Assistant Professor of New Testament였다. 연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겸 종교주임으로 일하다가 1972년에 사임하고 미국에 돌아온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김찬희 박사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은퇴 교수

연세대에서는 전교생의 필수 교양 과목인 '종교(기독교)' 과목을 위한 행정적인 일도 겸하고 있었다.

1968년에 연합감리교회가 탄생되었 때, 흑인 교회로만 구성되어 있던 Central Jurisdiction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흑인 교회들이 약화되었기에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소수민족 교회 강화 정책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네 개의 소수 인종 교회, 곧 흑인·히스패닉·아시안·미원주민 교회의 지도자 양성 및 강화를 위하여 네 개의 신학교에, 센터나 혹은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시안 교회를 위하여서는 클레어몬트에 하나의 center를 설립하게 되어 본인이 그 첫 소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나는 시간 절반을 센터를 운영하는 데 썼으며 나머지 절반은 가르치는 일에 바쳐야했다.

처음 클레어몬트에 와서 내가 놀란 것은, 이 대학원의 총장부터 건물 관리 직원들까지 모두백인 일색이었다는 사실이다. 인종 차별이 심한 미 남부도 당시에 그렇지는 않았다. 내가 공부하고 한때 일하였던 테네시주 내쉬빌도 1964년 새 민권법 제정된 이후로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몹시 당황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가 이 학교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전임으로 임명된 소수 민족계교수였으며 또한 미주에서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정규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된 것이었다. 1987년에 Center를 떠나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될 때 정교수(Prof. of New testament and Christian Ministries)가 되었다.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인종 차별을 철폐하여 개정된 1965 이민법으로 인하여 한인들이 70년 대 초부터 미국에 대거 이민 오기 시작함으로써 교회도 이에 따라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25%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민자들 중 약 35%가이미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었으며, 미주에 와서 또한 35%의 한인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미주 한인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70%나 되었다. 이렇게 밀려오는 한인이민 신자들을 연합감리교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인 교역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센터를 통하여이민 온 교역자들에게 미 연합감리회를 알리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를 미 감리회지도자들에게 알리며 소개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크게 실망스러웠던 것은 대부분의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 감리회가 자기들의 대외 선교로 시작된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한 감리회 정회원 목사들의 안수조차인정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한인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날로 늘어나고 있었으나 목회자들이 이전처럼 많이 이민 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1987년부터 센터 일을 내려놓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센터는 김신행 목사가 새로 부임하여 맡아 일하게 되었으며 나는 새 한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이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보았으며, 한인들을 위한 M. Div. Program뿐만 아니라 D. Min. Program도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클레어몬트대학원에서 Ph.D. 학위를 받은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이들이 미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활약하며 한국 교회에 지도자로서 공헌하고 있다. 이 당시에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회하기 시작하였던 졸업생들은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마음이 뿌듯한 것은 한인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한 일이다. 한인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당시 총장이었던 Bob Edgar 총장에게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 기금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30만 불을 모금하여 이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기에, 그것보다도 영구적인 장학 기금을 마련하고 투자하여 이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재정지원을 하여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니 그도 이를 쉽게 받아들였다. 나는 전임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여야 하기에 모금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모금 활동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였다. 마침 그 때 박대희 목사님이 떠올라 그에게 부탁드렸더니 쾌히 승낙하셔서 그는 삶을 마치실 때까지 크게 모금하시며 도와주셨다. 일 년쯤 지난 후 박 목사님을 도와드릴 평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에 LA연합감리교회의 존 장(장홍식 장로) 님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렸더니 쾌히 승낙하셔서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 기금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며 모금할 직원이 학교에 없었으나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래도 100만 불정도가 모금이 되었으며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 이를 책임질 전임자를 학교에서 채용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많은 기금을 모금하기에 이르렀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다.

목사 부인인 Betty Coots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는 이학교를 누가 세웠는지 아느냐고 나에게 물으면서, 그 가 Charles Maclay라고 하기에 나는 깜작 놀랐다. 그가 바로 한국감리교회의 첫 선교 감리사였으며, 당시 승정원에서 일하던 김옥균을 통하여 한국에 서양식 병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윤허를 받아 낸 인물인 Robert Maclay의 바로 두 살 위의 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에 Robert Maclay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관하여 여러 글을 썼다. 그는 한국 최초의 선교감리사였으며 한국 선교에 관하여 세 개의 글을 남겼는데, 이로 인하여 지금 한국 감리교회에서 초기 선교의 역사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그의 공로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1887년 은퇴하여 귀국한 후 형이 세운 우리 학교의 전신인 Maclay College of Theology의 Dean으로 일하다가 1907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제 시대 한인 목사들이 많이 유학하였던 일본의 아오야마가꾸인(青山學院)을 설립한 선교사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2015년에 서울에 갔을 때, 우리 졸업생이며 당시 감독 회장이었던 전용재 감독을 만나려고 감리교회 본부를 찾아 갔었는데, 그 때 본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 때문인지 물어 보았더니 한국 감리교회 선교 130주년 기넘 행사 준비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또한 놀라며 한국감리교회는 선교 130주년이 2015년이 아니라 2014년이며, 1934년에 대대적인 선교 5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으며 그 기록물들이 남아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였다.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보니 그 행사를 '아펜셀러 내한 130주년'으로 고쳐서 부른 것을 보았다. 그 이후로 지금은 대한감리회가 1885년을 선교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1884년의 윤허를 선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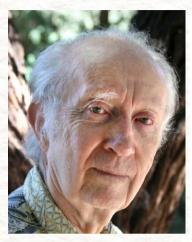
그 기록물들이 남아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였다.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보니 그 행사를 '아펜셀러 내한 130주년'으로 고쳐서 부른 것을 보았다. 그 이후로 지금은 대한감리회가 1885년을 선교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1884년의 윤허를 선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clay의 Dickinson College 20년 후배인 John F. Goucher의 재정적 지원도 잊을 수가 없다. 그가 보내 준 당시 \$2,000로 Maclay가 조선에 갈 수 있었으며 그 영수증이 잘 보관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의 한국에 관한 일기를 번역하여 한국 교회사학회학회지에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그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기 바란다. 그가 언더우드를 재정적으로 도와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는 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그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에 관한 연구를 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Henry Appenzeller의 후손들과 그의 사둔이 되는 Noble 선교사의 후손들과 우연히 알게 되어 그들의 나머지 유품들을 한국에 보내며, 옛 배재학당 자리에 Appenzeller와 Noble 선교사를 위한 역사관을 설립하는 일을 도우며 공헌하였다. 이에 관하여 남기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존 B. 캅 주니어 박사(John B. Cobb, Jr. 1925-2024) 부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저명한 교수이자 과정 신학의 선구자, 그리고 환경 운동가인 존 B. 캅 주니어(John B. Cobb, Jr)가 지난 12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다. 존 캅 교수는 생애 마지막 때까지 활동적이었지만, 며칠 전 넘어진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밤, 그는 100번째 생일을 6주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존 캅 교수는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 철학의 최고 전문가이자, 20세기 자유주의 신학, 특히 과정 신학을 선도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생태 경제학 분야에서 일해왔고 생태 문명의 비전을 꿈꿨다. 1973년, 그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교수 연구센터인 Center for Process Studies(CPS)를 설립했다. CPS는 많은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으며,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학자, 활동가,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데에 헌신했다. CPS는 그의 리더십을 통해 세계적인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존 캅 교수는 자신이 깊이 있게 전달해 왔던 상호 연결성을 몸소 실천했다. 그는 세상이서로 연결된 과정이며, 쇄신과 성장, 그리고 번영의 풍부한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쳤다. 보다연민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그의 비전은 학계와 체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수많은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존 캅 교수는 최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자 "다음 큰 모험"이라고 설명하며, "제 죽음이 삶의 극적인 변화가 되리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삶의 또 다른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2025년 2월 15일,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에서 존 캅 교수의 삶을 기리는 공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환대 신학 실천적 목회: 교회 문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짝 열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 박강민 목사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일신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3년 전 장로교 전통교회에 부임하여 클레어몬트에서 배운 환대 신학을 실천하며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하여 주민센터 '사회보장 협의회' 위원으로 섬기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숨어 있는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반찬 나누기' 환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 주말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 주말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와 엘리트 선수출신 교인들이 '야구 교실'을 열어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지역 어린이들이 교류하는 접점을 만들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영어 뮤지컬' '보드게임 카페' '악기·댄스 교실' 등을 개설하여 교회 문을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난 변화는 다음 세대와 30~40세대가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 선효경 박사(조기 영어 교육, Ph.D.)와 함께 하잉RTA 어린이 영어예배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접목하였습니다. 하잉RTA 프로그램은 유대인들의 쉐마교육(신6:4~9) 원리를 따라 개발한 하브루타 영어 성경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와 더불어 30~40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열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잉RTA 프로그램은 CTS 기독교 TV 방송에도 6개월간 정규 방송으로 방영하였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와 MOU 협약을 맺어 총회 산하 교회들에 이프로그램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선교지는 생각을 못 하였는데, 선교사님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선교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니 사역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하잉RTA 선교회'를 설립하여 후원자들과함께 선교지에 교육 콘텐츠를 보내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등 여러 선교지에 하잉RTA 콘텐츠가 보급되었고 현지 어린이들 마음에하나님 말씀을 새겨넣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레어몬트에서 배운환대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펜젤러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미국 순회공연

Proclaiming True Joy to the World

 $20\overline{25.1.13} \sim 1.22$















공연 일자 및 장소

1.14 (화) 랭캐스터 제일감리교회 랭캐스터, 펜실베이니아

1.15 (수) 뉴저지 더바인교회 잉글우드, 뉴저지

1.16 (목) 뉴욕 그레잇넥교회 그레잇넥, 뉴욕

1.17 (금) 시카고 탬플 교회 시카고

1.18 (토)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록포드, 일리노이

1.19 (일)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윌링, 일리노이

1.22 (수) 윌셔연합감리교회 로스엔젤레스

주관

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미동부 동문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중부 동문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서부 동문회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및 LA한인교회 방문 예정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이 아펜젤러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2025년 1월 미국 순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1월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진행되는 순회 공연은 펜실베니아부터 뉴저지, 뉴욕, 시카고, 일리노이를 거쳐 로스앤젤레스까지 일정이 이어진다.

감신대 합창단은 1월 20일 월요일에 LA지역에 도착하여, 오후 3시에 CST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Grant Hagiya 총장과 이경식 부총장이 CST를 안내하고 소개한다. CST 방문을 마친 후에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LA연합감리교회를 방문하고, 저녁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 저녁 식사는 CST의 제공으로 이루어진다. 1월 22일 수요일에는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합창단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은 "아펜젤러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행사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기꺼이 합창단을 초청해주신 국내의 교회 및 미국의 동문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특별히 "40명의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민족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한인 영구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을 소개합니다.

이번 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에서는 이병준 장로님의 삶과 헌신을 소개합니다. 이병준 장로님은 SeAH Steel USA의 회장 겸 CEO로 철강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으며, 서울대학교 동창회 활동과 LA연합감리교회 장로로서 신앙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내 이복형 권사님은 한국 무용을 통해 문화 보존과 전파에 헌신하며, 함께 신앙과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공한 국제 사업가 존경받는 크리스천 Philanthropist

이병준 장로(1936-)와 이복형 권사(1938-)

이병준 장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태어났다. 서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1958년 공군 사관후보생 42기로 임관하여 공본관리국에서 근무 후 예편하였다.

이병준 장로는 1963년 부산 철관 공업 주식회사 창설 요원으로 입사하여 부산파이프와 세아스틸 아메리카(SeAH Steel USA: https://seahsteelusa.com)의 핵심적 리더로서 또한 현재 SeAH Steel USA의 회장과 CEO로서 활약하고 있다. SeAH Steel USA는 대한민국의 지주회사세아스틸홀딩스(구세아스틸주식회사)에 속해있으며, 세아스틸홀딩스는 한국 최초로 카본철관을 미국에 수출한 회사이다. 세아스틸홀딩스는 미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및 이탈리아에 제조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포항, 군산, 순천, 창원 등 한국 내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아스틸주식회사는 전 세계 15개의 사업지를 운영하고 있다. SeAh Steel USA는 남가주와 텍사스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산업용도의 철관을 생산하고 있다.

이병준 장로는 로스앤젤레스 상사지사 협의회 회장,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며, 강영훈 국무총리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 대상 1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976년부터 LA(구 로벗슨)연합감리교회의 교인이었으며, 장로로서 속회의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준 장로의 관대한 기부 정신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왔다.

이복형 권사는 부산시 중구 대교로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무용 전공으로 졸업하고, 김백봉 무용 연수원 1기 졸업생으로서 무용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부산, 서울 YWCA 이사, 부산 이사벨여고 무용 교사로 활동하며, 미주와 본국의 김백봉 춤 보존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복형 권사는 한인 문화 사절단으로 일본 공연, 재미 한인 중국교포 위문공연, 김백봉 무용 워크숍 주최 등 다양한 무용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와 춤을 널리 알렸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주최 무용 콩쿠르 최우수상과 동아일보 주최 제1회 신인 무용인 등용 금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복형 권사는 현재 이병준 장로와 함께 신앙생활과 더불어 한국 문화 보존 및 전파에 힘쓰고 있다.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6일 기준-

이병준 강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이종오 박사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6일 기준): **\$281,045**

* 성함은 기부일자 순 입니다

- **KEF 잔액**(1990.03. - 2025.1.): \$2,391,654

- KLS 잔액(2018.10. - 2025.1.): \$688,815

- General Fund 합계(2024,03. - 2025.1.): \$10,0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께 했던 옛날, 같이 가는 새날"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한인 동문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곳에서 동문들의 발자취와 현재 활동을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과 격려를 전하고자 합니다.